

남북 접경지역서 與 독식... 수도권 중심 경험 '순풍'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상하수도 개량·대중교통 체계 협력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경기북부에 통일경제특구 산단 조성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인
설악·금강산, 동해안 관광벨트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당선인
인천·해주·개성 '경제자유구역' 추진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북교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서울·평양 교류 활성화 공약으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경평축구 부활 ▲서울·평양 간 도시 협력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를 공약했다.

서울과 평양의 도시 인프라 협력을 위해 평양 상하수도를 개량하고, 대중교통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의 환호에 엄지를 치켜들고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영체계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식생동물 종자교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교류로는 서울시향과 조선국립관현악단의 합동 공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서울·평양 아트 비엔날레'를 추진하고, 두 도시의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북한과 얼굴을 맞대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교류사업 전초기지로 거듭난다. 이재명 당선인은 평화 경기 조성을 위해 경기 북부에 통일경제특구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남북 교류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 협력체계 마련 ▲한강 하구의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 ▲경기 서해안 평화관광벨트 조성 지원 ▲문화예술체육 교류 확대 ▲남북교류협력기금 증액으로 도민중심 남북교류 지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비와 남북교류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

남북으로 나뉜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나선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설악산과 금강산, 동해안권에 이르는 관광벨트를 조성할 방침이다.

최 당선인은 강원선 철도 복원과 양양·백두산, 양양·원산 항공노선 취항을 약속했다. 속초·목호·원산·나진 구간 백두산 크루즈 항로 개척도 공약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입장에 이어, 2021년 동계아시아대회는 남북 공동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당선인은 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

구역'을 추진한다.

인천 강화 교통에는 평화산단을 조성하고, 기술자본집약산업과 금융서비스를 담당한다. 개성은 노동집약산업과 중소기업, 부품제조 중심 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패주는 대외경제특구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당선인은 북한과의 교류로 인천을 대외진출의 전략적 국제관문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서해평화연도교를 추진하고, 인천-남포 항로 등을 개설해 땅과 바닷길을 뚫는다는 구상이다.

박 당선인은 하늘길을 펴기 위해 인천공항과 평양의 순안공항을 잇고, 백두산·금강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원산공항길 개설도 약속했다.

남북공동어로구역도 조성도 추진된다.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고 합의했다.

/이범종기자 jaker@metroseoul.co.kr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1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제7 투표소에서 진영문화센터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극동늘푸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상계1동 제7투표소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 딸 설희 씨와 함께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구치소에서 '한 표' 행사... 박근혜는 기권

곳곳 투표 표정

권양숙 여사, 사저 근처 투표소 방문
안철수 후보, 부인·딸과 함께 투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미리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해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소 투표란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제도다.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된 경우, 한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대상자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현재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진들과 사전투표를 한 바 있다. 이는 전국단위 선거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대로 낮아 대통령이 직접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당시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이날 오전 8시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에서 조금 떨어진 진영문화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수행원들과 투표소에 나온 권 여사는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 전 사진기자들의 요청에 잠시 포즈를 취했다.

권 여사는 투표를 마치고 나서 투표 중 사자들에게 "수고하십니다"라며 인사를 하곤 바로 차에 올랐다.

취재진이 최근 상황이 급변한 것 등에 대한 소감을 요청했지만 미소만 짓고 응하지 않았다.

광역 단체장 후보자들도 투표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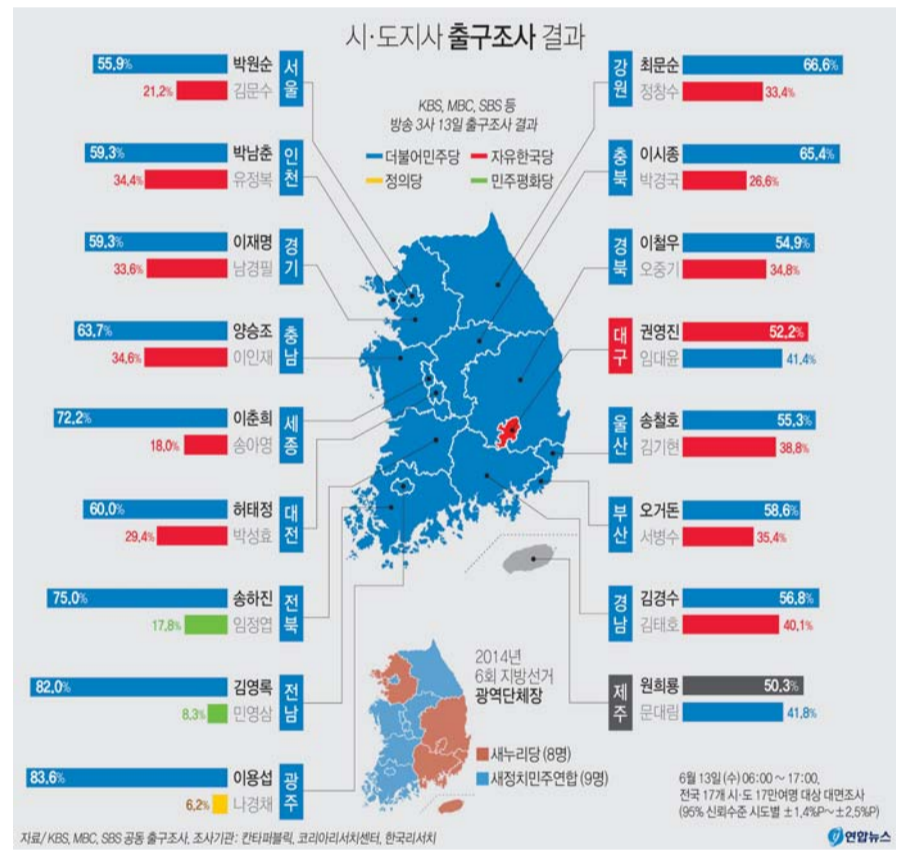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노원구 상계동 극동늘푸른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 딸 설희 씨와 함께 투표했다.

안 후보는 투표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어제 회담은 기대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점들이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을 보면서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졌다"면서 "북한이 지난 1990년대부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해왔던 주장과 (어제 회담 결과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한미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지난 8일 사전투표를 했다.

박 후보는 당일 '보수 텃밭'인 강남에서 민주당 구청장과 시의원을 각각 배출하겠다고 부인 강남희 여사와 함께 강남구 세곡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도 아내 설난영씨와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장에서 투표를 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더민주 10곳·자유한국 1곳 승리?

국회의원 재보선 출구조사

12곳 진행... 충북 제천·단양 경합
민주, 11곳 승리때 국회 130석 확보

지상과 방송 3사가 6·13 지방선거와 같이 전국 12곳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선 출구조사를 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0곳에서, 자유한국당이 1곳에서 각각 이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제천·단양의 경우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다.

KBS, MBC, SBS 등 지상과 방송 3사는 13일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함께 이 같은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민주당 후보가 다른 당 후보들을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된 지역은 ▲서울 송파을 최재성(57.2%) ▲서울 노원병 김성환(60.9%) ▲부산 해운대를 윤준호(54.4%) ▲인천 남동갑 맹성규(65.9%) ▲경남 김해을 김정호(68.5%) ▲울산 북구

이상현(52.2%) ▲충남 천안갑 이규희(56.8%) ▲충남 천안병 윤일규(65.9%) ▲광주 서구갑 송갑석(85.1%) 후보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72.4%) 등이다.

경북 김천의 경우 한국당 송연석 후보가 55.1%의 지지를 받아 승리가 예상됐다.

충북 제천·단양의 경우 민주당 이후삼 후보가 47.6%, 한국당 엄태영 후보가 45.7% 오차범위 내 박빙으로,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민주당이 제천·단양에서도 이길 경우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에 후보를 낸 전 지역에서 승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경북 김천을 제외한 총 11곳 재보선 지역에 후보를 냈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은 119석으로, 이번엔 11곳에서 승리할 경우 경우 130석으로 원내 몸집을 불리게 된다. 반면 한국당은 현재 112석에서 1석만 추가하게 돼 두 당간 격차가 이전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범종 기자